성비위에 불법 위탁 용역…광주 공공기관 '자정기능' 상실

시 감사위, 광주테크노파크 10건 적발···성비위·감사직원 징계 권고 일부 복지시설, 물품 사용 증빙 자료 부실 후원금 수입 내역 누락도

광주시 공공기관 자정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 이 나오고 있다.

성비위를 저지른 직원이 수사시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도 눈감아주고 제보사실 을 가해자에게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상급기관 으로부터 직원 징계 조치를 통보받고도 인사에 반 영하지 않기도 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위원회)가 지난 3월 4일부 터 21일까지 진행한 (재)광주테크노파크(재단) 종합감사 결과 10건이 적발됐다.

위원회는 성비위 직원 인사관리 부적정으로 징 계·주의 요구와 함께 기관장을 경고조치했다.

감사결과 2022년 12월 19일 재단의 A부장은 익명의 신고자로부 "직원 B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 었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니 해당 수사 관에게 사실확인이 가능하며, B씨의 성폭력 범죄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 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다.

그럼에도 A부장은 "현재 민원인이 주장하는 피 해 사실은 사건 종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해 자로 인식하면 안되기 때문에 근무 관련 사항은 별 도 조치가 불가하며, 해당자에게 민원 접수 사실 및 후속 사항을 안내하겠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어 제보사실을 B씨에게 알리고 어떠한 조치 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뒀다. 결국 B씨는 2024년 1월 9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24년 9월 30일 면직처리 될 때까지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감액 등 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았다.

감사담당자의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2024년 6 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감사업무를 수

이에 위원회는 성비위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 인 사위원회의 심의를 하거나 감사실에 조사 협조요 청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인계인수를 하지 않은 부장과 실장 등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까 지 인사제도 적정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직 원 4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통보했음에도 재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판단불가로 의결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재단은 커피전문점 위탁운영 용역 계 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2022년 1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총 2681건의 계약을 1인 수의계약으 로 체결한 점 등이 지적됐다.

지난 2월 5일부터 3월 12일 까지 진행된 여성가

족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에서는 보조금 관리 소홀이 드러났다.

광주시 동구지역 복지시설은 2022년에 총 212 개 647만7600원에 상당하는 후원물품을 수령·배 부한후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 명세서에만 기록했 다. 동구는 이 시설이 물품 내용·규모·수량 등을 확 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이용인에게 배부한 입증 자료(배부사진, 후원물품 수령증등)를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구지역 복지시설도 2022년 세입 결산보고서 와 함께 제출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에 500만원의 지정후원금 수입 내역을 누락하는 등 2022년 총 4건 1410만원, 2023년 총 5건 1296만 7800원의 후원금 수입 내역을 누락했다.

이외에도 서구 지역 복지시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동·노인복지시설에서 채용한 한 종 사자 중 13명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314일이 경과한 후 조회 하거나 7명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서구 역시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남구도 복지시설 관리 감독에 문제를 드러냈다. 남구 지역 복지시실도 2023년도 후원물품 2건에 대해 후원물품 수입 명세서에 등록하지 않고 누락 하고 후원기관에서 받은 온누리상품권(150만원) 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하고도 후원물품 사용명세서에는 '입소자(생활자) 지원'으로 이미 사용한 것으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내가 일할 곳 어디

14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드림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이 기업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16일까지 사

흘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300여 개 드림터가 참여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상담과 현장 면접 을 진행하는 자리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직무수행 평가 전국 1위…강기정 시장, 특·광역시 1위

한국갤럽 상반기 여론조사

강기정 광주시장이 '2025년 상반기 광역자치단 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8개 특·광역시 단체장 중 1위에 올랐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국 1위를 차지 했다.

14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1~6월) 광역자치단체장'(시·도 지사) 직무수행 평가 결과 강 시장은 '잘하고 있 다'는 응답이 52%로 8개 특광역자치단체장 중 가 장 높았다. 강 시장은 같은 조사기관의 민선 8기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특광역시 1위에 올랐다.

강 시장은 8개 특광역자치단체장 중 '순지수'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 격차로, 숫자가 클수록 긍 정평가)도 19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의 긍정 평가가 60% 로 가장 높았고, 50대(53%), 30대(52%), 20대· 60대(50%) 순이었다.

김영록 지사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3%로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장 중 가장 높았다. '잘하 고 있다'는 김 지사의 직무수행 평가 응답률은 작 년 하반기(62%)보다 1%p 증가했다.

김 지사는 부정 평가에서도 '19%'로 전국 시도 지사 중 가장 낮았다. 김 지사는 '순지수'도 +44으 로 가장 높았다.

20대(18~29세)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김영록 지사



는 57%였고, 30대 52%, 40대 59%, 50대 64%, 60대 64%, 70대 이상에서도 72%가 긍정 평가를 했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첫 해인 2018년 하반기 (9~12월) 직무 긍정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 답이 59%를 기록한 뒤 2020년 70%대까지 상승 했고, 두번째 임기인 민선8기에 들어서도 꾸준히 60%대를 기록, 전국 최고 수준을 지켰다는 게 한 국갤럽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올해 1~6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 로 진행됐다. 전 국민 18세 이상 1만7707명(17개 시도별 최대 4772명, 최소 156명)을 대상으로 진 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7개 시도 별 ±1.4~7.9%포인트다. 평균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

/김민석 기자 mskim@·정병호 기자 jusbh@

시민의 숲 물놀이장서 더위 탈출 광주시, 19일~8월 17일 무료 운영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광주시가 도심속 물놀이 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 오룡동에 위치한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이 19일부터 8월17일까 지 한달간 문을 연다. 입장료는 무료다.

시민의 숲 물놀이장은 물놀이장은 약 1000㎡ 규모에 평균 수심은 20cm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를 대상으로 한 도심형 여름 피서지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 과 청소를 위해 휴장한다. 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장애인 물놀이 체험활

동의 날'을 7월21일과 8월4일 이틀간 운영한다. 이날에는 비장애인의 출입을 제한된다. 물놀이장에는 돌고래·잠수함 형태의 대형 놀이

기구와 125m 길이의 계류형 물놀이 시설 등 다양 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다.

김종현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은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물놀이장에서 지역 어린이들이 마음 껏 뛰어놀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 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지방정가 라운지

"수질 악화에 생계 위협…영산강 하굿둑 개방 시급"

차영수 전남도의원 지적

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하굿둑 개 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영수(민주·강진)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 보고에서 "영산강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강과 바다 가 단절돼 하류 수질이 악화하고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환경부 주도의 타당성 조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남도가 직접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범 개방 구간을 설정하는 등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영산강 하굿둑 건설 이후 하류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 COD 4 등급, 총질소·총인 6등급 수준 으로 악화됐다.

차 의원은 "낙동강은 지자체가 먼저 움직여 수문을 개방하여 하 구 생태계가 복원됐다"며 "전님 도가 시범 해수유통 구간을 지정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구 생태복원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 라 수산업, 농업, 생태계 모두를 살리는 전남의 생 존 전략이다"며 "전남도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단 계별 로드맵을 구체화할 때 비로소 영산강 생태계 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광주문화신협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대표번호 1644-7990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문흥지점 ㆍ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동림지점 ・본 • 여신사업부 ・각화지점